

극지해소식

No.136

30 Jun

www.kmi.re.kr

책임 김업지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 김수 김민수 경제전략연구본부장
작성 김은우, 김주형, 김지영, 박수현, 박예나, 배경득, 엄단비, 채수란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락처 채수란 051)797-4790 (9orchid7@kmi.re.kr)

북극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이사회 제8차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 개최	02
국제기구 CAOFA 제3차 당사국총회 한국에서 개최	04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미국, 북극서 다시 영향력 확보에 나선다.	05
미국 미 환경단체, 북극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 철거 요청	06
캐나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KMI·KOPRI, '북극 원주민 세미나'	07
캐나다 캐나다 북극, 산불로 침엽수림 5,000ha 줄어들었다.	08
캐나다 캐나다, 2024 북극 개발 엑스포 개최	09
캐나다 캐나다·독일·노르웨이, 북대서양·북극 안보협정 논의	10
노르웨이 북극에서 중유를 사용하는 해운기업에 벌금 부과	12
노르웨이 노스롭 그루먼社, 북극 광대역 탐사 위성 발사 준비	13
노르웨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극 안보 정상회담	15
노르웨이 하이눈(High Noon) 2024 행사, 노르웨이에서 개최	18
러시아 러, 북극항로 경쟁력 강화 등 북극 지역 개발 세미나 개최	19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미국 미국·영국, 러시아의 전시경제를 겨냥한 독자제재 강화	21
핀란드 핀란드 지방 정부, 최북단 북극 지역 연중 관광 추진	22
러시아 러,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국가특별위원회 설립 추진	23
러시아 북극 경제특구 기업, 물류 터미널 건설 계획	24
러시아 러 야말, 북극 무인 항공 시스템 시험센터 설립	25

옵서버 국가 정책

중국 중국의 북극 진출 전략과 과학연구 동향	27
중국 중국, 차세대 쇄빙 조사선 '극지' 호 인도	29
인도 인도-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협력 확대	30
일본 일본, 원주민의 권리 관련 해양협약 논문 발표	32

옵서버 국가 산업·경제

중국 위스 뉴 에너지社, 러시아 프로젝트 중단으로 Arctic LNG 2에 영향	35
--	----

남극 소식

남극 관광 거버넌스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가?	36
IAATO, 남극에서의 책임 있는 관광 조치 발표	37
중국 극지연구소, 『남극 로스해 생태계』 발간	38
중국의 새로운 남극 전략: 아이스 드래곤 추진	39
인도, 46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개최	42

극지의 창(窓)

유럽 옵서버 국가의 북극 정책 - 영국 편	44
-------------------------	----

사진으로 본 극지 이야기

인류의 이기심으로 멸종된 큰바다쇠오리	53
----------------------	----



북극이사회

제8차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 개최
(2024. 6. 24.)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사진: 제8차 바르샤바 포맷 회의

<https://arctic-council.org/news/polands-contribution-to-active-observer-engagement-piotr-rakowski-on-the-warsaw-format-meeting/>

6월 6일 폴란드에서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대표와 유럽연합, 북극이사회 의장국 간의 직접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인 제8차 바르샤바 포맷 회의(Warsaw Format Meeting)가 개최되었다.

바르샤바 포맷 회의는 북극이사회 공식 구조에서 벗어나 옵서버 국가들이 이사회 의장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은 과학과 지속적 극지 연구에 중점을 둔 회의였으나 2017년부터 외교 정책 수단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등으로 북극이사회 공식 회의가 중단되면서 2024년 6월 회의는 대화 중심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노르웨이 의장국 임기 기간 내 수행하기로 한 영역과 그밖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 네 가지 구체적 의제를 포함했다. 노르웨이 의장국의 산불 이니셔티브와 다른 하나는 기후와 빙권에 대한 이슈를 포함했다. 또한 수년간 이사회 의제로 다뤄져 왔지만, 북극의 맥락에서 아직 충분한 데이터와 연구가 부족한 성평등 이슈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옵서버 단체인 WWF 북극 프로그램의 대표를 초청하여 옵서버들 간의 협력 기회를 논의하고, 북극 문제와 이사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는 산불과 빙하가 녹는 등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방대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비국가 옵서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옵서버의 전문성은 국가나 지역 사회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북극이사회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현대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북극이사회에서 많은 이니셔티브가 있었지만, 성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단계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옵서버 협력은 비국가 옵서버에 대한 더 나은 인식과 포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가 대표들은 국가와 연결된 기관에 초점을 맞추면서 NGO와 협회 등의 가치 있는 기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의 문제를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기구와 행위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극이사회 구성원 내의 모든 플레이어를 참여케 하는 더욱 포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모르텐 호글룬드(Morten Høglund) 북극이사회 의장은 옵서버 국가 및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을 높게 평가하며, 북극이사회 내 옵서버 의견 및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최한 폴란드의 피트르 라코우스키(Piotr Rakowski) 의장은 향후에도 옵서버 간 북극이사회 회원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기구

CAOFA 제3차 당사국총회 한국에서 개최
(2024. 6. 14.)

2024년 6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 제3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정은 북극권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북극권 5개국(한국,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유럽연합)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며, 상업적 조업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북극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시험조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CAOFA: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이번 총회의 성과는 먼저,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 이행계획이 채택되었다. 이는 북극 공해의 해양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향후 상업적 어업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험조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당사국들은 시험조업의 조건, 보고 절차,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특히 '시험조업 보존·관리 조치' 채택을 목표로 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 차기 총회까지 더 상세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의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학조정그룹(SCG) 산하의 일부 작업반이 폐지되고, 데이터 관리 작업반의 의장이 확정되었다. 또한 CAOFA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작업반이 설립되었다.

회의는 또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노르웨이에서 열릴 차기 총회에서는 '시험조업 보존·관리 조치', 비당사국의 협정 가입 요청 처리 절차, 기후변화가 중앙 북극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당사국 총회를 주최함으로써 북극 거버넌스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극 지역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총회의 결과는 북극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적 연구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미래의 상업적 어업 활동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102&page=5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채수란 9orchid7@kmi.re.kr

사진: 스크랜튼 소속 병사들이 알래스카 북쪽 클라크 호수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상공에서비행작전에 임하는 모습

<https://foreignpolicy.com/2024/06/07/arctic-united-states-military-strategy-competition-coast-guard/>

미국, 북극서 다시 영향력 확보에 나선다. (2024. 6. 7.)



미국은 한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북극에서 다시금 과거만큼의 지배력(power)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냉전 시기가 종식된 이후 북극권 국가들의 협력이 잘되던 ‘북극 예외주의(낮은 긴장 상태)’ 시기를 뒤로 하고 북극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되자, 미국은 긴장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급격한 해빙으로 어업과 채취의 기회가 생기자, 북극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격변을 겪기 시작했다. 게다가 러시아, 중국, 인도, 튀르키예가 글로벌 야망에 부응하기 위해 북극 전략을 공세적으로 펼치게 되었고, 미국은 한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알래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적 대응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해저 잠수함을 중심으로 북극 지역에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쇄빙선단을 확장하고 스칸디나비아와 그린란드를 가로지르는 극지실크로드 인 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서방의 개입으로 차단되었지만). 또 인도도 최근 첫 북극 전략을 수립했으며, 튀르키예는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 군도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접근을 허용하는 조약을 비준한 바 있다.

이에 미국도 새로운 북극 확대 전략을 모색하며, 군사적 안보 강화는 물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해안경비대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스크랜튼호와 같은 쇄빙 쾌속정을 더 많이 확보하려 예산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운반을 쉽게 하도록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에도 투자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 제기된 도전에 집중하면서 북극 전략 수립에 뒤처졌다. 이에 따라 북극 조기경보 시스템은 구식이 되었고, 연안 경비대의 북극 쇄빙선 노후화, 과학 장비 노후화, 알래스카의 미군기지 활주로 노후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최근까지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잃어버린 북극 역량을 회복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비로소 북극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며 미 의회는 응집력 있는 북극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미 환경단체, 북극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 철거 요청 (2024. 6. 13.)



글 채수란 9orchid7@kmi.re.kr

사진: 미국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의 모습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4/06/13/environmental-groups-urge-feds-to-reassess-and-plan-removal-of-trans-alaska-pipeline/>

미국의 환경단체 연합은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며, 송유관에 대한 새로운 환경분석이 필요하며 송유관을 해체하고 육상 회랑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살아있는 북극을 위한 주권 이누피아트(Sovereign Inupiat for a Living Arctic), 알래스카 독성물질 공동체 행동(Alaska Community Action on Toxics), 페어뱅크스 기후 행동 연합(Fairbanks Climate Action Coalition), 환경 책임을 위한 공무원(Public Employees fo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등은 알래스카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처할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연방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알래스카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은 약 800마일(약 1,287km)의 길이로, 1970년대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송유관 설치권을 승인한 뒤 경제적인 붐을 일으켰다. 이 송유관은 1977년 이래 180억 배럴의 노스 슬로프 원유(North Slope crude)를 운송했다. 환경단체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알리에스카 파이프라인(Alyeska Pipeline Service Co.)은 알래스카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은 환경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서면 답변을 발표했다. 또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인프라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환경단체와 맞서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클 박예나 yena719@kmi.re.kr

사진: 발표 중인 Herbert Nakimayak
부회장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164&idx=3445>

주한 캐나다 대사관·KMI·KOPRI, '북극 원주민 세미나' (2024. 6.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극지연구소(KOPRI)와 함께 '북극의 목소리: 원주민의 관점에서 본 해양환경(Voice from the Arctic: Indigenous Perspective on Marine Environment)' 세미나를 6월 13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인천에서 열린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제3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참가한 북극 원주민 대표단과 함께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Tamara Mayhinney), 김종덕 KMI 원장, 신형철 KOPRI 소장을 비롯해 환북극 이누이트 이사회(ICC) 대표단 등 4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ICC 캐나다 지부의 허버트 나키마야크(Herbert Nakimayak) 부회장이 북극 원주민의 시각에서 본 해양 보호와 관리, 국제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ICC 알래스카 대표단이 참여하여 북극해 환경이 원주민의 삶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과학과 전통 지식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타마라 모히니 대사는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지속 불가능한 어업 등의 문제에 대해 캐나다, 한국, 북극 원주민의 공동 대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KOPRI 소장은 한국 북극연구 공동체와 원주민 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젊은 연구자 교류와 국제 포럼에서의 공동 담론 생산 등 실질적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종덕 KMI 원장은 기관의 지속적인 북극 원주민 지원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원주민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국의 북극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원주민의 역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채수란 9orchid7@kmi.re.kr

사진: 소방대원들이 포트 굿 호프(Fort Good Hope) 근처의 경사면을 오르는 모습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4/06/24/wildfire-near-fort-good-hope-n-w-t-grows-as-crews-work-to-protect-community/>

<https://theconversation.com/the-worlds-boreal-forests-may-be-shrinking-as-climate-change-pushes-them-northward-211314>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1/11/04/climate-negotiators-point-at-russias-increasing-forest-fires>

캐나다 북극, 산불로 침엽수림 5,000ha 줄어들었다. (2024. 6. 24.)



북극 주변 아한대 침엽수림(subarctic boreal forest)은 북극을 동글게 둘러싼 거대 삼림 지역으로,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미국 알래스카 등에 펼쳐져 있으면 세계 육지 표면적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면적 12억 ha의 이 아한대 침엽수림은 전 세계 1/3에 해당하며, 아마존 열대우림에 이어 탄소 흡수능력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또한 이 침엽수림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난화를 늦출 뿐 아니라 탄소 저장량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매년 지구온난화가 빨라지면서 덥고 건조해져 나무가 말라버려 화재에 취약해져 삼림 지대에 산불이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주말인 6월 23일, 캐나다 북부 뉴사우스웨일스주 포트 굿 호프(Fort Good Hope) 외곽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5,000ha의 산을 태웠다. 이 마을은 일주일 넘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언제 대피령이 해제될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이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상승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삼림이 붕괴하고 침엽수림 남쪽은 가뭄으로 침엽수 대신 관목과 풀이 자라고 북쪽으로는 침엽수림이 툰드라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가 북극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 북부 카렐리야, 아르한겔스크, 코미, 야말-네네츠지역도 지난 5년 동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림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산불 증가추세는 북극권 국가의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캐나다, 2024 북극 개발 엑스포 개최
(2024. 6. 12.)**



2024년 「북극 개발 엑스포」 행사가 6월 10~12일 캐나다 서북부 노스웨스트 준주 이누빅에서 개최되었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엑스포는 토착 예술과 문화, 무역을 위한 박람회 부스, 학술 발표, 예술 공연, 커뮤니티 투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누빅 지역 온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북극의 식량 생산과 재생가능 에너지가 발표의 주요 주제였다.

「북극 개발 엑스포」는 이누빅 지역에서 10년 넘게 개최된 ‘이누빅 석유 박람회’를 이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수단을 통해 북극을 개발하기 위해 자연 및 재생 가능한 자원, 기후 및 에너지 혁신, 원주민 리더십·극지 거버넌스 및 주권 및 지식 경제 등 네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극지 생활을 개선하고 북극의 현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엑스포는 연구자, 원주민 지도자, 극지방 정부 관계자, 과학자, 산업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글 김주형 jhkim7664@kmi.re.kr

사진: 2024 북극개발엑스포 현장 모습

<https://www.arcticdevelopmentexpo.com/>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451521920826981&set=pb.100079075310996.-2207520000&type=3>

https://sg.news.yahoo.com/food-production-renewable-energy-among-141626872.html?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mNvbS8&guce_referrer_sig=AQAAAD1GnXN1O0IH43VN_a6YAAsr95oITq67H791zlbxAF_PDxhIM4msQIFjcUD2aFizWhFG6KeE4UMznUUR4ZLotONMln2jclGWnqO-w6jCKph1889KyxSYlqQvUr-EDa-f1TRhKfIPaFHednoWH57UESr7wtMV9evGmbvLmqsyZyNe&guccounter=2

북극권 국가 정책



글 배경득 weekly@kmi.re.kr
채수란 9orchid7@kmi.re.kr

그림: 독일 해군 212A급 잠수함 'U 34'
네 척의 모습

<https://www.cbc.ca/news/politics/canada-germany-norway-nato-submarines-1.7240569>

캐나다·독일·노르웨이, 북대서양·북극 안보협정 논의 (2024. 6. 20.)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가 북대서양과 북극을 포괄하는 3국 국방 및 안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리고 삼국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협정을 도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초 캐나다 오타와(Ottawa)를 방문했을 때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에게 해양 분야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서한에는 노르웨이 비외른 아릴드 그램(Bjørn Arild Gram) 이 국방장관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캐나다 블레어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과 후속 논의를 했다고 인정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파트너십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상호 운용 가능한 전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방위 산업 협력을 포함하게 된다.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는 캐나다의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함대를 개선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캐나다가 나토의 국방비 2%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캐나다는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노르웨이는 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212CD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독일과 이탈리아 해군이 모두 운영하는 독일 Type 212A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독일과 노르웨이는 81억 달러(55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6개의 212CD(독일용 2개, 노르웨이용 4개)를 건조 중이다. 두 유럽 국가 모두 2026년에 두 번째 잠수함 배치를 위해 제조업체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양국은 캐나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현재 국방 협회 회의(Conference of Defense Associations Institute)를 이끄는 전 캐나다 국방 참모부 차장인 티볼트(R. Thibault)는 오커스(AUKUS)와 같은 소규모 지역 안보 협정이 잠재적으로 북대서양과 북극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小) 다자화 추세가 캐나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방 분석가도 이에 동의하며 특히 독일과의 파트너십이 캐나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Macdonald-Laurier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연방 국방 및 추밀원(privy council: 군주의 자문기관) 관계자인 알렉스 달지엘(Alex Dalziel)은 3국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은 잠수함 구매 외에도 "의미 있고 지속적인 협력,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주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왼쪽)과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와 국방부 본부에서 공동기자 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사진

<https://www.cbc.ca/news/politics/canada-germany-norway-nato-submarines-1.7240569>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엄단비 dbu@kmi.re.kr

사진 출처: 셔터스톡

<https://safety4sea.com/operators-receive-nok-1000000-fine-for-carrying-hfo-in-the-arctic/>

북극에서 중유를 사용하는 해운기업에 벌금 부과 (2024. 6. 18.)



노르웨이 당국은 북극의 스발바르를 기항하던 아일랜드 화물선 '아클로 윈드'호에 대해 환경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선박은 2022년 1월부터 이 지역에서 중유(HFO, Heavy Fuel Oil)의 사용이나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6일 스발바르 해역에 입항했을 때 중유(HFO)를 선내에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위반으로 인해 선사에게는 100만 NOK(Norwegian Krone, 9만 4466달러, 한화 1억 3000만 원), 선박 선장에게는 3만 NOK(2,834달러, 한화 39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는 스발바르 환경법 82a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중유(HFO)를 스발바르에 기항하는 선박에서 금지함으로써 취약한 북극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선사는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10월로 예정된 법원 심리가 열릴 때까지 운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금지 조치는 중유 유출로 인한 잠재적인 생태계 피해로부터 스발바르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제9장 제43A조에 따라 북극 해역에서 중유를 연료로 사용 및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이후 북극 해역에서 MARPOL 부속서 I의 제43.1.2조에 명시된 오일을 선박의 연료로 사용 또는 운송하는 것이 MARPOL 부속서 I, 제46.2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유(HFO)는 15°C에서 밀도가 900kg/m³보다 높거나 50°C에서 동점도가 180mm²/s보다 높은 연료(고밀도, 고점도)로 정의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노르웨이

글 엄단비 dbu@kmi.re.kr

사진: 버지니아주 달레스에 위치한 노스롭 그루먼의 위성 제조 시설에서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ASB M-1 및 ASBM-2 위성. (출처: 노스롭그루먼)

<https://news.northropgrumman.com/news/releases/northrop-grumman-ships-space-norways-arctic-satellite-broadband-mission-satellites-to-launch-site>

<https://www.spaceforce.mil/News/Article/2866035/ussfs-eps-r-program-on-schedule-for-historic-polar-mission/>

노스롭 그루먼, 북극 광대역 탐사 위성 발사 준비 (2024. 6. 21.)



6월 21일,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스페이스 노르웨이의 북극 광대역 위성 탐사 임무(ASBM: Arctic Satellite Broadband Mission)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성 2기를 발사장에 인도했다. 북극 광대역 통신위성은 미 우주군(US Space Force)과 노르웨이 우주국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위성은 도달하기 어려운 북극 지역에 상업용 광대역 및 군용 위성 통신을 제공해 북극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극지 부대가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과 노르웨이는 극지방에서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고 핵심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노르웨이와 협력함으로써 예산을 절약(9억 달러 이상)하고, 극지방에 위성통신 기능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SBM은 노스롭 그루먼의 GEOStar-3 호스팅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까지 40개 이상의 임무에 GEOStar 우주선이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한 군 위성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시스템 사령부의 극지 시스템 강화(EPS-R) 페이로드는 국제 파트너가 운영하는 상용 우주선에 탑재된 최초의 미군 운용 페이로드가 된다. ASBM 위성은 빠르면 7월 중순에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브랜든 화이트 노스롭그루먼 부사장 겸 전술 우주 시스템 총괄 매니저는 “ASBM은 정부는 물론 상업적인 임무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노스롭 그루먼은 ASBM과의 협력을 통해 수십 년간 쌓아온 궤도 경험과 엔드투엔드 우주 기술 전문성을 선보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ASBM은 스페이스 노르웨이, 노르웨이군, 미 우주군, 비아셋, 노스롭 그루먼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ASBM에 제공되는 GEOStar-3 위성에는 전력, 추진, 통신, 명령 및 데이터 처리, 열 제어, 유도 및 항법 제어를 위한 우주 차량과 운영 시스템이 포함된다. 또한 노스롭 그루먼은 이러한 기능을 위해 미 우주군 EPS-R(Enhanced Polar Systems-Recapitalization) 탑재체와 통제 및 계획 부문 지상 시스템도 제공했다. 이 위성은 노르웨이 군대를 위한 X-밴드 탑재체, 비아셋을 위한 Ka밴드 탑재체, 노르웨이 방사선 모니터 탑재체를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미 우주군의 EPS-R은 안전한 군사 통신을 위해 설계되었다. ASBM 위성에 EPS-R을 호스팅하면 보안 요구 사항을 유지하면서 복원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정부-상업 위성' 전반에 페이로드를 분산할 수 있게 된다. 노스롭 그루먼은 선도적인 글로벌 항공우주 및 방위 기술 기업이다.

<https://news.northropgrumman.com/news/releases/northrop-grumman-ships-space-norways-arctic-satellite-broadband-mission-satellites-to-launch-site>

북극권 국가 정책



클 엠단비 dbu@kmi.re.kr

사진: 요나스 가아르 스토레 노르웨이 총리가 노르웨이 북부 보도에 정박 중인 해안경비함 KV 스발바르 호에서 핀란드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를 맞이하는 모습 (사출처: 힐데군 바이)

<https://www.highnorthnews.com/nb/nordiske-statsledere-legger-inn-felles-stot-pa-nordkalotten-opp-mot-nato-toppmote>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극 안보 정상회담 (2024. 6. 23.)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상은 노르웨이 보도(Bodø)에서 북유럽 국방 방위계획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스 가르 스토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는 “우리는 북부 유럽의 평화, 안정, 질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공동의 정치적 이해가 필요했다.”라고 회담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 정상은 물론 각국의 최고 정치인들과 함께 북유럽 지역의 장기적인 국방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 의제는 러시아 억지력을 위한 북유럽 삼국의 “국방 협력”이었다.

이 자리에서 올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는 “이번 회담은 올여름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2024년 7월 9일~11일 예정)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보도에서의 논의를 통해 북유럽 3국이 보다 단합된 의제를 가지고 정상회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해안경비함 KV 스발바르 호에 함께 탑승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총리는 하이노스(highnorth)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의 신규 회원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북유럽 삼국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요나스 가아르 스토레 노르웨이 총리는 자국에서 개최된 보도에서의 회담이 북극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사진: 요нас 가아르 스토레 총리의 모습 (출처: 힐데군 바이).

<https://www.highnorthnews.com/nb/nordiske-statsledere-legger-inn-felles-stot-pa-nordkalotten-opp-mot-nato-t-oppmote>

요нас 가아르 스토레 총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가 원수들을 보도에 이틀간 초청하여 국가 간 긴밀한 협력, 북유럽 북부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나토 정상회담 직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삼국이 모여 북유럽 안보를 위해 공통의 안보협력방안에 합의한 후 나토에 일괄적인 목소리로 힘있게 대응하기 위한 초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총리는 “우리 국방 당국자들은 이미 수년 동안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공조를 위해 노력해 왔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같은 방위 동맹에 속해 있고 나토 내에서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은 동맹을 더욱 견고히 했다.”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 기자들의 질문 중에 스웨덴 총리와 핀란드 대통령에게 억지력과 북극과 러시아 간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 그는 "노르웨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견제(억지력)는 우리의 자체 방위와 나토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균형은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말한다. 1949년 이후 우리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 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그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번 회의는 노르웨이가 해양 국가라는 점과 이것이 노르웨이 국방과 노르웨이의 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 에 대한 노르웨이의 관점을 스웨덴 및 핀란드 동료들과 공유할 기회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서로 다른 지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이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노르웨이



사진: 스웨덴 군 작전본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핀란드 국방부 장관 안티 카이코넨,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 비요른 아릴드 그램,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텝, 노르웨이 총리 요나스 가르 스토레,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국방부 장관 폴 온손(출처: 힐데군 바이)

<https://www.highnorthnews.com/nb/nordiske-statsledere-legger-inn-felles-stot-pa-nordkalotten-opp-mot-nato-toppmote>

이번 정상회담은 삼국의 정상과 국방장관이 모두 모여 회담의 무게감을 더했으며,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물류에 관한 의제도 논의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보되 노르웨이군 작전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토레 총리는 각국 국방부 장관이 북쪽 국가들 사이 이동 경로를 더욱 짧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프라 및 물류 의제도 군사적 목적의 일환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비외른 아릴드 그램(Bjorn Arild Gram)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 기동력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계속 연구하여 북칼로트를 가로질러 여러 국가 간 최상의 작전 능력과 기동성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최상의 작전 능력과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프 크리스터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북유럽 지역 전체가 나토의 회원국이 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안보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군사 이동성 개발이란 위기 상황 발생 시 연합군 증원군이 노르웨이에 도착하여 스웨덴으로 이동하고, 더 나아가 핀란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 알렉산더 스텝 대통령은 "노르웨이는 발트해 지역이 막히는 경우, 핀란드에 대한 군사지원을 할 유일한 출입 경로이다"라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엄단비 dbu@kmi.re.kr

사진: 하이 노스 뉴스의 편집자 아르네 홀름(Arne O. Holm)이 토론 시리즈 하이누를 이끄는 모습 (출처: 아스트리 에드바르센)

<https://www.highnorthnews.com/en/high-noon-2024-northern-debate-youth-preparedness-democracy-and-moral-arts>

하이누(High Noon) 2024 행사, 노르웨이에서 개최 (2024. 6. 24.)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노르웨이 북부 하르스타드(Harstad)에서 북극 예술 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토론 시리즈인 하이누(High Noon)이 주목된다. 올해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 온 여러 신진 아티스트의 음악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주요 게스트 중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아이슬란드 출신의 작가 잔 칼만 스테판슨(Jón Kalman Stefánsson)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나흘 동안 북극의 환경과 회복, 북유럽 민주주의, 예술과 도덕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예술과 문화, 연구, 정치, 공공 기관 및 기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의 진행은 하이노스 뉴스의 아르네 홀름(Arne O. Holm) 편집자가 맡는다. 오전 11시 30분부터 하르스타드에 있는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캠퍼스 내 카페 프랜디움에서 진행되며, HNN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올해 북극 예술 페스티벌 토론 시리즈는 북극과 북극에서 바라본 우리 시대의 주요 도전 과제를 진지하게 다룬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홀름은 말했다. 그는 또한 "각 토론에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저널리즘의 핵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술과 정치를 결합하는 것은 북극예술축제와 하이노스뉴스의 긴밀하고 좋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북극권 국가 정책

 러시아

러, 북극항로 경쟁력 강화 등 북극 지역 개발 세미나 개최 (2024. 6. 6.)



글 김지영 jijeong111@kmi.re.kr

<https://xn--90ab5f.xn--p1ai/press-tsen-tr/59108/>

<https://gov-murman.ru/info/news/523150/>

6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북극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네네츠 자치구, 아르한겔스크 및 무르만스크 주, 카렐리아 및 코미 공화국, 야쿠티야 주지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대표,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과 극동 북극 개발 공사 및 로사툼(Rosatom)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는 북극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북극 도시와 교통 허브의 발전 전망 논의를 위해 북극 지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투자 토론이 진행되었다.

“북극항로: 북극의 지평을 넓혀”라는 주제의 토론에서는 최적의 북극 운송 모델의 구상 방향과 철도-해상으로의 화물 전환의 이점, 2035까지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 운송량 증대에 필요한 운송 수단과 규모 등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었다.

이고르 레비틴(Igor Levitin) 러시아 대통령 국제 교통 협력 특별 대표는 북극항로(SM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랄, 시베리아 지역에 두 개의 추가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교통 회랑의 미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극항로 연결 철도는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만 있다. 우랄이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극항로로 연결되는 추가적인 철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은 러시아 유럽 지역의 무르만스크 또는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만 철도로 운송할 수 있는데, 이는 동부 폴리곤의 혼잡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로운 경로 획득은 전체 교통 회랑에 걸쳐 화물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극권 국가 정책



블라디미르 파노프(Vladimir Panov) 로사톰 북극 특별 대표는 2024년 북극항로를 통해 최대 3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화물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가을 향해 시즌에 최대 3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현재 모든 화물 업체들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까지 2억 5000만 톤의 운송량을 달성할 것이다. 이는 현재 동부 폴리곤의 화물량과 견줄만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파노프는 북극항로의 교통 운송에 내륙 수로를 통합할 계획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강을 통해 북극항로로 화물을 운송하고, 이를 우랄 지역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드르 치불스키(Alexander Tsybul'skiy) 아르한겔스크 주지사는 “북극항로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안 인프라가 새로운 대규모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르한겔스크 지역은 철도 및 도로를 통한 다른 지역과의 정기적인 교통 연결, 조선 및 선박 수리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해당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의 완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첫 러시아-중국 북극항로 개발 공동위원회 회의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8월까지 해당 프로토콜에 서명할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미국

글 채수란 9orchid7@kmi.re.kr

사진: 2021년 Novatek의 Arctic LNG 2
프로젝트의 자원 기지인 우트렌네이(Utrenneye) 필드의 모습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4/06/14/new-sanctions-take-aim-on-russias-war-economy/>

미국·영국, 러시아 전시경제를 겨냥한 독자제재 강화 (2024. 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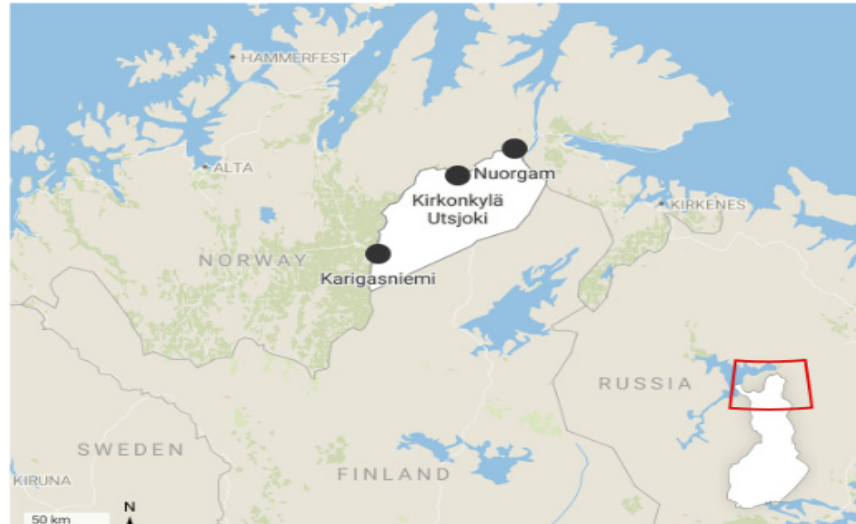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 제재는 새로운 제재(2024년 5월)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이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러시아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들이 러시아의 전쟁에 기여하기 위한 전시경제(war economy)로 전환했다고 밝히면서 제재 조치는 방위, 제조, 기술, 운송, 금융 서비스 100개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재의 영향을 받는 새로운 프로젝트 중에는 Obsky LNG, Arctic LNG 1 및 Arctic LNG 3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목표는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수출을 방해하고 프로젝트 개발을 저지하는 데 있다. 새로 추가된 제재 목록을 살펴보면, 러시아 최대 해운 회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와 Arctic LNG 2를 위한 4척의 LNG 운반선 건설을 겨냥하고 있다. 이 선박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즈베즈다 조선소(Zvezda Yard)에서 건조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노바텍(Novatek)은 선박 완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Arctic LNG 2 프로젝트에서 최대 400명의 엔지니어와 건설 인력을 즈베즈다 조선소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의 이 같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노바텍은 북극 개발계획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미국 재무부가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영국 외무부도 추가 제재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바텍 무르만스크(Novatek Murmansk)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도 제재 대상에 대규모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인 무르만스크 LNG(Kola Bay: 콜라반도 위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핀란드 지방 정부, 최북단 북극 지역 연중 관광 추진 (2024. 6. 13.)



글 채수란 9orchid7@kmi.re.kr

사진: 핀란드 최북단지역 지도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4/06/13/finlands-northernmost-municipality-utsjoki-pushes-for-year-round-tourism/>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3/06/05/iceland-moving-ahead-on-better-ways-to-manage-tourism-safeguard-protected-areas/>

노르웨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지방자치단체 우츠요키(Utsjoki) 의회는 연중 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다. 사미족 인구가 대다수인 핀란드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우츠요키 지역은 ‘여름 연어낚시 관광’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2021년부터 시행된 연어 어획 금지조치와 어족자원 약화로 인해 지자체의 장기 경제전망이 어두워지자 지역경제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연중 내내 관광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6월 10일 시의회는 마스터플랜의 목표를 승인하였다. 마스터플랜의 목표는 2035년까지 관광을 통해 100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최소 200개의 침대를 갖춘 상업용 숙박시설을 확보하기로 하는 한편, 관광객들이 우츠요키에서 하룻밤을 묵고 노르웨이로 당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르웨이 관광청과 협력하여 왕복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 이 계획을 위해 핀란드 최북단에서 노르웨이 도시 시르케네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핀란드 토지 보호 당국(Metsähallitus)과 함께 토지(주택건설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를 개발시키기 위해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여름 동안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에 대해 작업을 마무리한 뒤 최종 계획을 2024년 가을 의회에서 평가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슬란드도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관광업을 꼽으면서 관광개발에 적극적이다. 스웨덴도 팬데믹 이후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북극권 국가들은 민감한 환경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jyeong111@kmi.re.kr

<https://spb.vedomosti.ru/economics/news/2024/06/19/1044782-chibis-voz-glavit-komissiyu-gossoveta-po-razvitiyu-sevmorputi-i-arktiki>

러,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국가특별위원회 설립 추진 (2024. 6. 19.)



이고르 레비틴(Igor Levitin) 러시아 대통령 고문 및 국제 교통 협력 특별 대표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된 제11회 시베리아 교통 포럼에서 러시아 국가위원회 산하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위원회를 안드레이 치비스(Andrey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가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 전체 회의에서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작업이 계속될 것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 국가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비틴 고문은 "우리의 과제는 북극항로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해상 및 하천 항구, 강 하구에서 북극항로로 나가는 쇄빙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북극항로 및 북극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며, 이를 무르만스크 주지사가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제11회 국제 시베리아 교통 포럼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포럼에서 교통 물류 인프라, 무인 시스템 및 디지털 혁신, 도로 건설 전망, 교통 안전, 내륙 수로 운송, 항공 산업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jyeong111@kmi.re.kr

<https://arctic-russia.ru/news/provere-no-v-arktike-v-yakutii-poyavilas-novaya-sistema-sertifikatsii-tovarov/>

북극 경제특구 기업, 물류 터미널 건설 계획 (2024. 6. 19.)



AK&M 통신사에 따르면, 북극 경제특구(AZRF)의 새로운 거주 기업인 "프롬스트로이아르틱(Promstroyarctic)"사는 빌리비노와 아르한겔스크 지역에 월 3,000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 터미널을 건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KRDV)와의 협약에 따라 7억 6000만 루블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자금은 장비 구매와 건설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리하 쿠르바노바(Zalikh Kurbanova) 프롬스트로이아르틱 대표는 "우리가 추코트카의 빌리비노와 아르한겔스크에 건설할 물류 터미널은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의 육상 운송 기업을 지원할 것이다. 이 창고 단지는 개방형 및 폐쇄형 저장 공간으로 구성되며, 여기에서 다양한 운송 수단 간 화물의 수령, 발송 및 환적이 이루어질 것이된다. 각 터미널의 면적은 약 300제곱미터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코트카 KRDV의 세르게이 콜리야드코(Sergey Kolyadko) 국장은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과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극동 지역에서 조성된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 특히 세제 혜택과 AZRF 제도의 특혜, KRDV의 종합적인 지원 및 지역 당국의 지원 덕분에 투자자들이 발전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KRDV에 따르면, 현재 추코트카 자치구 AZRF 거주 기업들은 22개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사업체들은 이미 지역 경제에 1,620억 루블을 투자하고, 약 92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4개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jyjeong111@kmi.re.kr

<https://ria.ru/20240615/bespilotniki-1953087382.html>
러야말, 북극 무인 항공 시스템 시험 센터 설립
(2024. 6. 15.)

러시아 야말에 북극 무인 항공 시스템(BAS) 시험 센터와 시험 및 인증을 위한 고정 이동 시험장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북극 지역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다.

야말-네네츠 자치구(YANAO)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기관, 항공청, 국가 항공 교통 관리 공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극 무인 항공 시스템 시험 센터설립을 위한 인프라 개발, 안전 보장, 인증 시스템 구축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알렉세이 드로노프(Alexey Dronov) YANAO 프로젝트 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는 무인 항공기의 착륙장과 비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시험을 통해 무인 항공기가 원격 거주지, 주거지, 그리고 광산까지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극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기본 시험장은 살레하르드의 오브도르스크 착륙장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한 관제 및 공항 인프라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고난도 이동 시험장은 고성능 이동 차량을 기반으로, 시험 및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점에 설치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착륙을 위한 견고한 분해형 플랫폼,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한 신속 조립식 모듈, 통신 장비, 난방 및 전력 공급 장비, 야전에서 전문가들이 장기간 작업할 수 있는 설비가 포함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안드레이 포템킨(Andrey Potemkin) 러시아 항공청 부청장은 “야말은 무인 기술을 도입하기에 독특한 장소다.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상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밀도가 낮아 공중 및 지상의 위험이 최소화된다. 또한 야말 지역의 혁신 지향적인 지도부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무인 항공 시스템 센터 설립 테스트를 위해 야말 지역의 러시아 과학 기관 및 인증 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 착륙장을 설치할 펠보즈, 카트라보즈, 하프, 하르베이 강 인근, 파유타와 라보로바야 팩토리 등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 지역들은 슈리시카르스키, 야말스키 및 프리우랄스키 지역의 인프라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아르류호프(Dmitry Artyukhov) 야말 주지사는 5대 주요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안전”을 선택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야말 지역은 자연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와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한 첫 번째 지역이 되었으며, 현재 이 지역의 3분의 2는 무인 항공기가 커버하고 있다. 2023년 화재 발생 시에는 발견 당일 87%의 화재가 진압되었다. 지난해 야말은 화재 진압의 신속성 면에서 북극 지역 내 상위 5개 지역에 들었다.

옵서버 국가 정책



중국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사진 : 북극해 논문 국가별 저자 비율

<https://theconversation.com/chinese-scientists-are-increasingly-shaping-the-future-of-the-arctic-amid-chinas-rising-presence-230509>

중국의 북극 진출 전략과 과학연구 동향 (2024. 6. 7.)

최근 중국의 북극 관련 연구 급증으로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북극의 생태계와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설명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연구는 북극 지역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고, 천연자원 개발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북극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확보한 과학 데이터는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되어 영유권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중국, 인도, 한국 등 비북극 국가들도 과학연구를 통해 북극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에 과학연구를 적극 활용했다. 또한,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중국, 인도, 영국 등 비북극권 국가들은 스발바르 제도에 연구진을 꾸준히 파견하는 등 북극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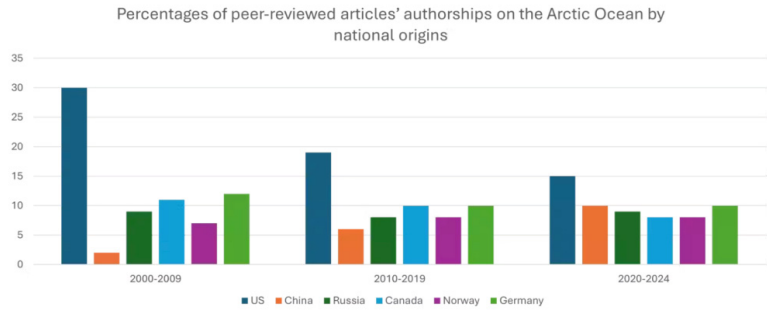
2007년 이후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극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북극 정책을 수립하며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 왔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최근 국제 공역인 중앙 북극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북극권 국가인 중국에게 이 지역은 활동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다. 중국은 2037년까지 중앙 북극해에서의 상업적 어업 금지 국제협약에 동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학연구를 통해 향후 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올해 여름 중국은 14번째 북극 과학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북극에서의 과학활동 강화는 중국에는 자원 확보와 항로 개척 등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중앙 북극해를 포함한 북극 전역에서 중국의 과학 활동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은 북극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과학연구 동향을 제공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사이 북극 관련 논문을 발표한 중국 과학자들의 비율이 약 5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과 캐나다 등 북극 연구 분야의 전통적 강국들의 논문 발표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옵서버
국가 정책

중국



중국의 북극 연구는 특히 중앙 북극해와 가켈 해령(Gakkel Ridge)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중앙 북극해 관련 중국의 과학 논문 출판량은 8배(1%에서 8%로), 가켈 해령 관련 논문은 6배(2%에서 12%)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이 매년 실시하는 북극 과학 탐사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북극 과학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앙 북극해와 가켈 해령은 중국의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중앙 북극해의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과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이 지역에 수산자원 관리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켈 해령의 경우, 열수 분출구 주변에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 지역은 중국을 포함한 비북극권 국가들의 자원 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중국의 북극 연구는 서방과의 교류가 제한적인 채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국 과학자들과의 협력 분야를 제한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Scopus에 따르면, 중앙 북극해 관련 중국 논문의 45%가 중국해양학회, 중국극지연구소 등 자국 연구기관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매체에 게재되고 있다. 이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메이린 스트로크(Mayline Strouk) 교수와 파리 시테 대학교의 마리온 메소노베(Marion Maisonobe) 교수가 수행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중국을 포함해 인도와 한국 등 비북극권 국가들은 과학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타국 과학자들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발표된 중앙 북극해 관련 중국인 저자의 논문 중 약 65%가 외국인 공동 연구자 없이 중국인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저술되었다.

이처럼 북극 연구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은 전통적인 북극권 국가에게 과학연구 투자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옵서버 국가 정책



중국

중국, 차세대 쇄빙 조사선 '극지' 호 인도 (2024. 6. 24.)

2024년 6월 24일, 중국의 차세대 쇄빙 과학조사선 '극지(極地)'호가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에서 공식 명명식 및 인도식을 가졌다. 이 선박은 2024년 하반기부터 과학조사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자연자원부 베이하이(北海)국 소속인 '극지'호는 중국선박그룹(中國船舶集團) 산하 광찬국제유한회사(廣船國際有限公司)가 자체 설계 및 건조했다. 선박 길이 89.95m, 선폭 17.8m, 시속 15해리의 '극지'호는 무제한 항해가 가능하며, 4,600톤 규모에 1만 4,000해리 항속 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60명의 승무원이 80일간 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광찬국제유한회사의 차이루이모우(蔡睿暉) 부총공정사겸 '극지'호 총설계사는 이 선박이 겨울에는 서해와 발해에서 쇄빙, 환경 모니터링, 해수 측정, 구조 활동을, 여름에는 극지 및 원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극지'호는 앞으로 극지 해양, 해빙, 대기 등에 대한 종합 조사 및 관측 연구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종합적인 해양환경 관측과 샘플 채취 능력을 갖춘 이 선박은 중국의 해양재해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사진: 중국 차세대 쇄빙 조사선 '극지'호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406/dfc9b3dd7dc74997bbab0f991930f260.shtml>



옵서버 국가 정책



인도-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협력 확대 (2024. 6. 2.)



글 배경득 weekly@kmi.re.kr
채수란 9orchid7@kmi.re.kr

<https://www.dailyexcelsior.com/india-russia-collaboration-in-arctic-region/>

러시아의 북극 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광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광물은 인공지능(AI), 전기 자동차(EV), 반도체와 같이 중요하고, 성장하는 산업에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북부 해안을 따라 약 5,500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그 면적은 약 200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여기에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및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권 국가 외에 인도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극지역에 진출하기로 한 것이다. 인도의 한 싱크탱크(think tank) 전문가는 러시아 뉴스 매체인 스푸트니크(Sputnik)에 북극이 인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극지방의 풍부한 중요한 광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 NatStrat의 수석 연구원인 라지 쿠마르 샤르마(Raj Kumar Sharma) 박사는 러시아가 북극 지역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 점점 더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8개국 북극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북극이사회의 8개 회원국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이다. 즉 전쟁으로 인해 고립된 러시아와 북극 진출을 통해 경제적·정치적·과학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옵서버 국가 정책



샤르마 박사는 탄화수소, 인프라 개발, 연결성, 목재, 광업과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이 북극에서 인도-러시아 협력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면서 “인도와 러시아는 단순한 국방 무역을 넘어 관계를 다각화해야 한다. 또 북극은 인도-러시아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2022년 3월 '북극정책'을 수립한 이후 극지방에서의 활동을 늘려왔다. 인도의 북극 정책은 과학연구 및 협력 강화, 기후와 환경 보호, 경제 및 인간 개발 촉진, 교통 및 연결성 개선, 거버넌스 및 국제 협력 보장, 국가 역량 강화 등 6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는 북극항로(NSR) 개발을 위해 모스크바와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오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행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정책 회의에서 인도의 대외협력부 자이산카르(Jaishankar) 장관은 북극 물류 루트(Polar Route)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통과하여 인도와 유럽 사이에 새로운 물류 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글 김주형 jhkim7664@kmi.re.kr

https://www.spf.org/opri/newsletter/572_3.html

사진: BBNJ 협정 체결 당시 현장
(<https://media.un.org/photo/en/asset/oun7/oun7989804>)

일본, 원주민의 권리 관련 해양협약 논문 발표 (2024. 6. 5.)



최근 일본 해양정책연구소(OPRI)에서 해양과 관련한 국제협정문에 포함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조문을 분석하고, 북극 원주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OPRI 오션뉴스레터 제572호, 일본 주오대학교 오사카다 유코(小坂田 裕子) 교수의 「바다에서의 탈식민화인가? 국제해양법을 둘러싼 원주민의 싸움」이라는 주제의 논문이다. 이하에서 이 논문을 소개한다.

해당 논문은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이하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 ‘중양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이하 ‘CAOFA’),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이하 ‘BBNJ 협정’)에서 각각 원주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과정과 내용을 담았다.

2007년 9월 13일 채택된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에서는 원주민의 자결권, 지적재산권, 토지 및 영역·자원에 대한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의 기초 작업에서는 원주민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원주민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인민(peoples)의 자결권을 자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에서 “indigenous peoples”(복수형)를 사용하도록 요구했지만, 복수의 국가가 원주민에게 분리독립권을 포함한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indigenous people” 등의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 제 46조에서 영토보전을 언급해, 분리독립권을 부정하는 형태로, 원주민의 자결권이 인정되어 “indigenous peoples”로 표기되었다.

이와 함께, 원주민은 그들의 자결권을 나타내는 문구로 “indigenous peoples”를 다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른 국제문서에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에서는 국가가 대문자 ‘States’로 기재되는 반면, 원주민은 소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 자체가 양자의 비대칭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일부 원주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원주민은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을 다른 국제법 분야에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CAOFA’ 및 ‘BBNJ 협정’에도 반영되었다.

‘CAOFA’는 2018년 10월 3일, 북극해 연안 5개국과 주요 관심 어업국·기관이 포함된 10개국·기관 사이에 체결되었다. 원주민 그룹은 북극이사회의 상시 영구 참가자인 원주민 그룹인 ‘북극 이누이트 이사회(ICC)’가 협정 교섭 참가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하여, 미국·캐나다·덴마크에 원주민 그룹의 대표가 국가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CAOFA에는 원주민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한다.

CAOFA 전문에서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을 언급하며 원주민을 “indigenous peoples”(복수형)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전문은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북극 거주자의 이익을 인식하고, 이들 거주자가 ‘북극해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의 보존 및 관리의 기초로서 북극해 해양생물 자원 및 생태계에 관한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원주민 및 현지 지식(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을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명시했다. 제4조 4항에서는 과학적 조사 및 감시에 관한 공동계획 작성에 있어 원주민 및 현지 지식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제5조 2항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북극의 원주민을 포함한 북극 사회의 대표자가 참가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과학조정그룹(Scientific Coordinating Group)의 운영 규칙 등이 채택되어 원주민 대표도 국가 대표의 일부로서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2023년 6월 19일 협정문이 공식 채택된 ‘BBNJ 협정’의 교섭에서는 태평양 소도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 대표가 BBNJ 협정에 전통적 지식과 그 보유자인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규정을 넣도록 요구했으며, 그 결과 BBNJ 협정에는 원주민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BBNJ 협정’ 전문에서는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을 언급하며 원주민을 대문자 “Indigenous Peoples”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근대국가 성립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국제법의 탈식민지화를 목표로 자신이 국민국가와 대등한 존재(Nation to Nation의 관계)이며, 그 상징으로서 조약 등에서 대문자로 기재되는 국가(States)와 같은 대문자로 원주민을 기재할 것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BBNJ 협정’은 원주민에게 국가와 같은 지위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배려」는 지금까지의 국제해양법에는 없었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9조 2항, 제21조 2항(c)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설정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로서 원주민과 지역사회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제19조 3항, 동 4항(j)에서는 그 전통적 지식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의 특징에 이용된다고 한다. 또한, 제31조 1항(c)에서는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할 경우, 과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사회의 관련된 전통지식도 참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OFA’와 ‘BBNJ 협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법 전반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양법을 구조 전환할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해양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원주민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이들 조약에서 원주민의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조문상 명기되어 체결국이 원주민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이러한 성과가 원주민의 노력으로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에 반영된 결과에 기초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제 원주민은 국제법 형성의 중요한 행위자가 된 것이다.

이런 새로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분리되지 않고, 제반 국제협약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원주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옵서버 국가 산업·경제

 중국

위슨 뉴 에너지社, 러 프로젝트를 중단으로 Arctic LNG 2에 영향 (2024. 6. 17.)

중국 엔지니어링 기업 위슨 뉴 에너지(Wison New Energies)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러시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향후 신규 러시아 사업 수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LinkedIn을 통해 발표했다. 회사 측은 러시아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전략적 미래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는 지난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신시대'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여러 안보 현안에서 미국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다.

노바텍(Novatek)은 지난해 위슨 뉴 에너지와 하얼빈 광한가스터빈(Harbin Guanghan Gas Turbine)사의 장비를 사용해 LNG 플랜트용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기단(Gydan) 반도에 연간 1,980만 톤의 LNG와 160만 톤의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Arctic LNG 2 플랜트를 건설 중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작년 12월 첫 번째 트레인(train)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고, 올해 1분기부터 상업적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국 주주들의 참여 중단으로 노바텍은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제재와 가스 운반선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슨 뉴 에너지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wison-new-energies-quit-russian-projects-blow-arctic-lng-2-2024-06-21/>

남극소식

남극 관광 거버넌스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가?
(2024. 6. 4.)

2024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케랄라 주 코치에서 개최된 제46차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ATCM-46)는 남극 활동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을 해내지는 못했다.

남극 관광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해 왔다. 1992년부터 2020년 사이에 관광객 수는 10배 증가했으며, 2022~23시즌에는 10만 4,897명에 달했다. 이러한 관광 증가는 남극 생태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다. 관광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남극 보호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탄소 발자국, 방문 지역 훼손, 야생동물 서식지 방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남극 관광은 주로 국제남극관광운영자협회(IAATO)를 통한 자체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와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자체 규제만으로는 남극의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할 만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이번 제46차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각국은 남극 관광을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를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야심 차고, 포괄적이며, 유연하고 역동적인 프레임워크(ambitious, comprehensive, flexible, and dynamic framework)”를 만들어 관광과 비정부 활동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 규칙으로 인해 많은 전략적 정책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모든 협의당사국의 동의를 필요한 이 규칙들은 종종 실질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 이후에도 남극 관광 거버넌스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남극의 독특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관광 성장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광 산업, 연구자, 환경 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더욱 강력하고, 과학에 기반한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eurasiareview.com/04062024-tourism-governance-in-antarctica-an-elusive-dream-even-after-atcm-46-analysis/>

남극소식

IAATO, 남극에서의 책임 있는 관광 조치 발표
(2024. 6. 20.)

국제남극관광운영자협회(IAATO)는 2024~25년 남극 관광 시즌을 앞두고, 책임 있는 관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IAATO는 4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17개의 새로운 방문객 사이트 가이드라인과 7개의 단기 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협회의 5개년 전략 계획인 ‘남극 관리자의 역할 수용(Embracing our Role as Antarctic Stewards.)’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IAATO의 리사 켈리(Lisa Kelley) 부사무총장은 남극 여행의 특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새로운 조치들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민간 부문 남극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IAATO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해양 및 육상 사이트를 모두 포함하며, 운영자와 가이드들에게 환경적 가치와 민감성을 고려한 실용적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IAATO는 2024~25년을 위한 단기 조치로 현장 가이드를 지원하는 새로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개발, 남극 대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IAATO 오피서버 프로그램 발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IAATO는 1991년 설립 이후 남극조약체제 내에서 회원사들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장기적인 관광 및 환경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협회는 관광 목적의 영구적 기반 시설 개발에 반대하며, 남극 보호를 위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IAATO의 노력은 남극 관광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책임 있는 관광을 통해 남극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클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iaato.org/international-association-of-antarctica-tour-operators-enhances-responsible-tourism-measures/>

남극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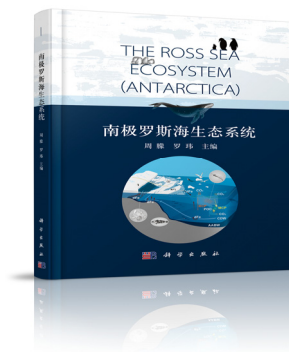
중국 극지연구센터, 『남극 로스해 생태계』 발간
(2024. 6. 3.)

최근 중국극지연구센터와 상하이교통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극지과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남극 로스해 생태계』가 중국 과학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남대양 생태계 시리즈'의 일부로, 중국극지연구센터 극지생태보호연구소 소장이자 상하이교통대학교 해양학원 원장인 저우멍(周朦) 교수와 극지센터의 뤼웨이(罗玮) 연구원이 공동 책임을 맡았다. 아울러 중국과학원 수지란(苏纪兰) 원사(院士)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미스터 로스해'로 알려진 워커 올슨 스미스(Walker Orson Smith) 교수의 지원도 받았다.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사진: 『남극 로스해 생태계』 표지 및 참여
집필진

<https://www.pric.org.cn/index.php?c=sow&id=1917>

《南极罗斯海生态系统》
编委会

主 编: 周 朦 罗 玮
副主编: 张磊峰 冯斌斌 曹 彪 曹 旭
编 委: 李 和 海 周 文 涛 刘 子 俊 成 亮 兵 孙 博 利
陈 宇 璇 王 建 宇 高 云 鹏 郝 佳 慧 王 琳
周 永 平 袁 耀 群 李 佳 康 陈 光 磊 王 小 春
编 者: 杨 伟 强 胡 强 赵 袁 彬 罗 玮
译 海 峡 译: 苏 纪 兰 Walker Orson Smith 徐 超 何 朝 峰
合 著

남극 로스해는 빅토리아랜드와 메리버드랜드 사이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로스 빙붕과 접해 있다. 이 해역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먹이사슬이 완전하며, 남대양에서 생산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또한 로스해는 탄소 흡수율이 매우 높아 전 지구적 탄소 순환과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로스해 생태계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양물류 과정, 생물 자원 상태, 보호구역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상수 영양염, 미량 금속, 생산력, 생물 개체군 분포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이 연구는 로스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에 있어 현재의 지식 격차를 밝히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지란 원사는 이 책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로스해의 생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학계, 정책 입안자,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책은 중국의 남극 친링(秦岭) 기지 설립 이후 과학연구 계획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물론, 남극 생태환경 보호와 국제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극소식

중국의 새로운 남극 전략: 아이스 드래곤 추진
(2024. 5. 31.)

호주 공군 장교이자 미국 항공사령부 참모대학 우수 졸업생인 제나 히긴스(Jenna Higgins)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현대전쟁연구소 홈페이지에 중국의 남극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다만,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 미국 육군사관학교, 육군부 또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남극에 대한 관심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는 남극의 미개발 자원을 통해 미래 경제 번영을 도모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히긴스는 고대 중국 바둑의 전략적 모델이 중국의 남극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바둑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요구하며, 영토 구축, 연결 형성, 상대방 압박에 중점을 둔다. 이는 중국이 기술 혁신, 국제적 영향력, 남극해 접근을 통해 남극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히긴스의 분석에 따르면, 1959년 남극조약체제(ATS) 출범 당시 중국은 배제되었지만, 이후 꾸준한 노력을 통해 1985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남극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기지 건설, 채빙선 운용, 과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며 남극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히긴스는 2006년 중국이 남극 대륙을 중심에 둔 수직 세계지도를 공식 군사지도로 채택한 사건에 주목하면서 이는 남극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2015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극지, 심해저, 우주'를 새로운 전략적 영역으로 공식 선언한 것은 중국의 장기 전략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히긴스는 이를 통해 중국이 이들 공간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 확보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히긴스는 또 현재 남극에서의 자원 개발은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남극의 거대한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남극에 약 5,000억 톤의 석유와 3,000~5,000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남극해에만 1,350억 톤에 이르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중국의 극지 정책이 자원 확보나 과학연구를 넘어서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히긴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2013년 중국 고위 관료들이 '극지 강대국'이라는 개념을 중국의 해양 전략의 핵심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https://mwi.westpoint.edu/ice-dragon-chinas-antarctic-strategy/>

남극소식

요소로 언급한 발언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중국 및 극지정치 전문가인 앤-마리 브래디 (Anne-Marie Brady)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북극과 남극에서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 회복과 '부국강병(富國強兵)'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이 현행 국제해양규범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ATS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1991년 채택된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에 대한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의정서 개정은 2048년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 과반수와 협의 당사국 4분의 3 이상의 동기가 필요하다. 히긴스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향후 24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여 남극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히긴스는 중국 공산당이 바라보는 '강력한 해양 전략'의 핵심이 '힘의 투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통한 전통적인 의미의 힘 과시뿐만 아니라, 국제규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남극 전략에는 첨단 기술 개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핵추진 쇄빙선 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를 중국의 해양 강국 도약 열망과 마한의 해양력 이론 적용 의도로 해석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극지 강국 발전을 해양 강국이라는 더 큰 목표와 연결 지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국영 조선소가 극지에서의 해운, 에너지 개발, 국가안보를 위해 여러 척의 핵추진 쇄빙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종합적인 극지 전략을 보여준다고 했다.

히긴스에 따르면 중국은 남극 접근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다양화하고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호주와 뉴질랜드 경유지가 정치적 관계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전국을 비핵지대로 지정하는 오래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중국이 핵추진 쇄빙선을 본격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보급 기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2022년 4월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5년 기간의 안보 협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히긴스는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을 언급하며,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을 연결해 전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남극소식

히긴스는 「돌에서 배우기: 중국의 전략적 개념을 마스터하기 위한 바둑 접근법 (Learning from the Stones: A Go Approach to Mastering China's Strategic Concept)」 (2004)의 저자 데이비드 라이(David Lai)의 바둑 철학 관점을 인용하여 중국의 전략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데이비드 라이에 따르면, 바둑의 철학은 체스와는 달리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그는 호주와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은 중국의 남극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ATS의 현행 구조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 유지와 함께 중국과의 공동 과학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극소식

인도, 제46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개최
(2024. 5. 31.)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사진: 제46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1. <https://www.ats.aq/devAS/Meetings/Past/97>
2. <https://www.ats.aq/devph/en/news/264>
3. <https://government.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t-hubs-t-recruit-2024-sets-new-benchmarks-in-startup-talent-acquisition/110584460>

인도 케랄라주 코치(Kochi, Kerala)에서 2024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제46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46)와 제26차 환경보호위원회(CEP-26)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인도 지구과학부 산하 국가 극지 해양연구소(NCPOR)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이 행사에는 총 404명의 각국 대표단이 등록했으며, 328명이 직접 참석하고, 76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극조약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 의제는 남극조약체제 운영, 법적 책임, 생물자원 탐사, 정보 교환, 교육 문제, 다년 전략 업무 계획, 안전, 과학 이슈, 미래 과학 과제, 과학 협력, 기후변화 영향, 관광 관리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남극 관광 및 비정부 활동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regulating tourism and non-governmental activities in Antarctica)를 개발하기로 한 점이다. 그러나 협의당사국들은 캐나다와 벨라루스의 협의당사국 지위 요청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환경보호위원회(CEP)에서는 해빙 변화의 관리 영향, 주요 활동의 환경영향평가 강화, 황제펭귄의 보호, 남극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17개의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관리계획을 채택하고, 역사 유적 및 기념 유적지(Historic and Monument sites) 목록을 수정·보완했다. 또한 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위험 최소화를 위한 생물보안 조치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했다.

남극소식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의 키렌 리지주(Kiren Rijju) 지구과학부 장관이 인도의 두 번째 남극연구기지인 Maitri-II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남극지역에서 인도의 과학연구 및 국제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발표이다. 인도는 이 새로운 연구기지 설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ATCM 기간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되었다. ‘변화하는 남극과 앞으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극지연구소(KOPRI)와 일본 고베대학교 극지 협력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했으며, ‘종이 풍부한 남극’이라는 테마의 벽화가 제작되어 젊은 세대의 남극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외교를 통한 과학 발전, 연구를 통한 협력 촉진’이라는 주제의 대학생 대상 패널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이번 ATCM-46과 CEP-26 회의는 ‘Vasudhaiva Kutumbakam’(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남극조약체제가 추구하는 평화, 과학 협력, 남극 보존의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차기 제47차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는 2025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남극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과학연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관광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결정과 환경 보호 관련 다양한 조치들이 채택된 것은 남극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의와 결정들은 국제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철 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글 김봉철 bong625@hufs.ac.kr

유럽 오피버 국가의 북극 정책-영국 편**1) 개요**

영국은 유럽에서 북극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가장 일찍 시작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부터 영국의 상인과 선원들이 해양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북극해와 인근 지역을 탐험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880년까지 영국은 북극 지역을 대상으로 포경, 어업, 모피 포획 등을 진행하였으며, 북극의 여러 자원을 사용하여 자국 산업 확장에 활용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영국은 1996년 오타와 선언에 오피버로 참석하였고 1998년 첫 번째 북극이사회의 장관회의에도 참가하여 북극 지역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최근 영국은 북극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개발 등 변화하는 북극의 상황에 대응하고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안보에 관한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 영국으로서는, 북극 지역의 안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국제 무역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섬나라로서, 북극해를 통한 새로운 항로 개발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영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북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북극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북극해 항로 등과 관련하여 선박 중개, 투자 등 여러 금융 서비스의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영국은 관광, 통신, 위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을 둘러싼 여러 경제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북극 과학 연구 분야에 장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연구 위원회 자금으로 3000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스발바르 제도에 영국 연구 기지를 건설하고,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해양 강국인 영국은 한국의 아라온호와 같은 극지 연구선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등 연구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¹⁾ 영국은 안보, 경제, 환경,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을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논의를 진행하는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2012년 Report of the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와 2013년 Adapting to Change: UK policy towards the Arctic

김봉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2012년 영국 하원의 특별위원회인 환경 감사 위원회는 북극 보호에 대한 조사 보고서 (Report of the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를 발표 하였다.²⁾ 이 보고서는 석유 시추 등 북극 지역에서 활동하던 영국 에너지 기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국이 북극의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달성 해야 할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북극에서 석유 시추를 하는 경우 기름 유출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추작업은 얼음이 없는 짧은 여름 동안 진행되어야 하는데, 석유를 시추하게 되면 기름이 6개월 이상 분출되기 때문에 여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되어, 야생동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환경 감사 위원회 차원에서 영국 내 에너지 기업의 ‘북극 석유 시추’가 ‘환경 오염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영국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극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영구 날씨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구 동토층의 해빙이 녹으면서 메탄가스의 배출이 증가하는 등 여러 환경 문제들의 시급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하원의 이 보고서는 영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북극의 변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극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것이 기후 변화의 주된 요인이며, 이를 국제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 발의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하원의 보고서를 통해 북극의 환경 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영국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제한 및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영국 하원 보고서는 정부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후 영국의 북극 관련 정책은 2013년 처음으로 Adapting to Change: UK policy towards the Arctic이란 이름을 가지고 발표되었다.³⁾ 이 정책은 북극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에 주목하여 극지방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영국의 접근 방식으로 존중, 리더십, 협력의 세 가지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극의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원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고려한 과학 기술을 개발하거나 향후 정책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진다. 또한 이 정책은 영국이 북극 지역에서 다양한 과학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북극 지역에 관한 자국의 정책을 확장하고 진출할 것임을 미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영국의 기본 정책은 북극 관리에 관한 주요 행위자로 북극 지역 8개 국가와 원주민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필요한 경우에 영국과 같은 외부 국가도

김봉철 교수

—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개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 논제를 들고 있다. 이 정책은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반적인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북극 관련 문제까지 대응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북극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까지 영국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 국가 정책의 이름이 ‘변화에 대한 적응’인 만큼, 이 정책에서 영국 정부는 북극 지역에서 변화하는 상황과 지역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 정책은 영국 국내적 차원에서는 자국민이 북극 지역에서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국외적으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환경 보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를 마련함과 동시에 영국 기업의 북극 지역 활용에 있어서 책임 있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구상하였다.

이 정책은 세부적으로 원주민 보호, 환경, 경제적 영역이라는 세 분야를 구분하였다. 원주민 보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 유지와 함께 북극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북극이사회의 오픈서버 국가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북극 인접 국가들과의 강력한 거버넌스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UN 해양법 협약 등 주요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정책은 북극이사회 오픈서버로서 영국은 이미 원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무 그룹 차원에서 여러 활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환경 측면의 경우, 이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 등 환경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는 2012년 영국 하원 보고서에도 강조되었던 내용으로서, 이 정책은 여러 국제기구 및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영역은 이 정책에서 가장 많은 세부 목차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환경 변화로 인해 북극 지역이 에너지, 항로 사용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안보, 항로 이용, 관광업, 어업 등을 대표적인 분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명시하고 있는데, 북극이사회 오픈서버 국가로서 북극에 대한 책임 있는 경제적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은 북극의 환경 변화가 북극 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영국의 리더십과 목표를 강조하였고, 따라서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출 것을 계획하고 있다.

3) 2018년의 On Thin Ice: UK Defence in the Arctic⁴⁾와 Beyond the Ice: UK policy towards the Arctic

김봉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2018년 영국의 하원 국방위원회는 북극 방어 능력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On Thin Ice: UK Defence in the Arctic을 발표하였다.⁵⁾ 이 국방보고서는 정책 제안이 아니라 당시 북극 및 인근 지역의 안보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만큼, 주된 내용은 인근 국가들의 상황과 영국의 군사 능력을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2013년 정책과 유사하게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의 환경 변화를 제시하면서, 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북극 지역의 안보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안보 변화는 북극해의 얼음이 줄어들어서 항로 및 에너지 추출로 접근하기가 쉬워짐과 동시에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기본 특징으로 하던 북극 안보 환경에 변화 또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서 북극 인근 국가로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북극 지역 안보에 변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국은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영국은 북극 지역에서 국제법 준수 및 규범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 지역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극 지역을 영국 안보의 중심이라고 명시하고, 영국은 이 지역에 관한 안보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국방보고서는 NATO를 활용한 새로운 군사적 초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극 안보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또한 안보 논제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결국 이 보고서는 북극 인접 국가들의 안보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래의 다양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영국의 군사력 및 대응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발표 이후 같은 해 9월에 발표된 군사 전략에서는, 영국이 노르웨이 해병대와 함께 혹한기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북극 안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같은 해 9월 영국의 국방부는 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극 국방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영국 정부는 북극 지역에서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영국의 군사 활동을 계획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18년 북극과 관련된 두 번째 정책 문서인 ‘Beyond the Ice: UK policy towards the Arctic’를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영국의 정책은 2013년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분야를 포함하였다.⁶⁾ 이 정책은 전반적인 영국의 북극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북극 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새로운 영국의 정책은 이전 2013년 전략에서 강조하였던 존중, 협력, 적절한 리더십의 기본 3가지 요소를 그대로 기본 접근 방식의 핵심에 놓았다.

영국은 이미 북극 지역의 관리 책임이 북극 인접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원주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김봉철 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영국의 이 정책에서도 이러한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북극 상황에 대한 과학적 연구, 북극의 환경보호, 지역의 평화로운 번영 촉진을 정책의 기본 골자로 내세웠다. 특히 이 정책은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의 분야에서 영국의 리더십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극 지역에서 영국의 상업적 이익 또한 보호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영국과 원주민 양측의 방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국제사회 전반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전체에 적용되는 이른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의 기초를 따르고 있다. 영국이 과학 연구, 투자, 환경 보호 및 국제 협력 등 영국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정책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상정하면서 발표된 것이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입지를 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이 2013년 전략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지는 부분으로서, 영국은 이 정책을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북극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자 계획하였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으로는 국제적 영향력 증대, 환경 및 원주민 보호, 경제적 이익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브리튼 기초를 바탕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영국은, 국제 거버넌스 구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영국은 북극이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다자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북극권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북극해에서 진행되는 어업 협상에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럽 과학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이러한 변화 상황에 주목하며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북극 문제에 있어 이전처럼 중요한 주체로 남을 것이며, 발생가능한 국내외적 변화 상황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다른 점은, 과학 연구와 관련해 별도의 장을 구성하기보다는 거버넌스 구성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영국은 독일, 미국, 러시아와 함께 MOSAiC(Multidisciplinary drifting Observatory for the Study of Arctic Climate)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기준 약 6,300만 유로(한화 약 933억 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로서 중앙 북극해 탐사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또한 영국은 국제 북극 과학 위원회(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북극 연구 포럼(Forum for Arctic Research Operators) 등 주요 국제 과학 기관의 회원국으로서 활동하였고, 이러한 국제적 북극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영국은 국제적 영향력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북극 지역을 경제적 상업적 이익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중시하면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김봉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북극이사회는 2014년 북극 경제 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하여 북극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경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북극 인접 국가들 사이의 시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북극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북극 인접 국가 외에도 해당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영국은 국내 기업들이 북극 경제 이사회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계획하였다.

4) 2022년 UK's Defence Contribution in the High North와 2023년 Looking North: The UK and the Arctic

영국 국방부는 2022년 3월에 북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국방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18년에 발표한 북극 정책인 Beyond the Ice의 내용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 영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 목표를 제시하였다.⁷⁾ 2021년 영국 국방부의 문서에서는 북극 지역의 방어와 안보 유지가 영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2022년 전략은 영국이 북극 지역과 항로가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최근의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 관련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전략에서 제시하는 국방 목표에는 동맹국과의 협력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탐색, 운영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전략은 UN 해양법협약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국제법 및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시스템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은 NATO, 북극 지역의 국가들, 영국의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극 지역에서의 안보 훈련 및 작전 운영을 포함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본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의 국방 계획안을 설계하고 있다. 더불어 북극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인접한 북대서양, 북유럽, 발트해 지역 등 영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인근 지역으로 영국의 북극 안보 전략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군사 전략 및 훈련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국방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등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방전략에서 규정하는 High North는 북극 지역을 포함한 북대서양 일부 지역으로 영국의 환경, 번영, 에너지, 공급망 구성, 안보의 전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18년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한 북극 전략 보고서에서 영국은 러시아를 경계하며 러시아가 북극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영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러시아에 더하여 새로운 주체로서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로 활동하기 시작한 중국은 2018년에 북극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1년에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하

김봉철 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기도 하였다. 이 전략에서 영국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의한 상황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중국과 같은 새로운 국가들이 북극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북극 지역의 개방과 함께 새로운 모습의 경쟁 또는 협력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 국방전략을 통해서 자국의 국방과 안보에 있어 북극 지역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은 북극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여러 기회가 생겨나는 동시에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동맹국, 북극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협력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10년 계획으로 제시된 이 전략은 영국의 전반적인 북극 안보 정책을 포함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검토 및 시행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영국의 가장 최근 북극 정책은 2023년 2월에 Looking North: The UK and the Arctic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2022년 발표된 국방부 보고서의 연장선으로 북극 지역과 관련된 영국의 모든 정책과 전략을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전까지 영국의 북극 정책은 환경, 과학연구, 국제 거버넌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국방부 차원의 안보 전략이 연결되어 별도로 발표되는 모습이었다.⁸⁾ 2023년 발표된 이 정책은 이러한 모습에서 변화하여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최신의 정책에서는 북극 지역에서 영국의 모든 이해관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북극 지역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영국의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국방부 전략에서도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극 지역의 변화에 주목하였는데, 이 최신의 정책에서도 영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주요 변인으로 보았다. 이 정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및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전반적인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극 지역 또한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영국은 이에 발맞춰 역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전반적인 국제 정세 및 북극 지역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북극에 대한 영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는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상황의 유지라 할 수 있다. 영국은 북극 지역의 특징이 국가 간의 협력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북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들과 협력하는 영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 정책에서는 크게 4가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즉, 영국 정부는 국제적 파트너십 구성, 환경 및 원주민 보호, 북극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 유지, 경제적 공동 번영 증진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세우면서, 범정부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정책이 기존의 영국 극지 정책과 국방부 전략을 통합한 형태인 만큼,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서 이들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정책은 북극

김봉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인접 국가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영국군의 방어 능력과 영국의 북극 연구 시설이 갖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 능력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주된 관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영국은 북극 지역의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극의 환경 및 지역 사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에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지역의 거버넌스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였는데, 이 정책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역할을 유지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5) Arctic Connections: Scotland's Arctic policy framework

영국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는 북해와 연결되어 북극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특색이 있다. 이곳은 석유를 생산하여 영국 전체에서 경제적 역할이 크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북극해에서 연결되는 중요한 운송 통로가 되기도 한다.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잉글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북극 지역과의 외교 정책에 주목하였다. 2017년 가을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와 북극 지역의 정책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든버러에서 Arctic Circle Scotland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장을 바탕으로 하여 2019년 9월에는 Arctic Connections라는 북극 정책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시작하였다.

이처럼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와는 다소 차별화된 북극 정책과 실행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북극 지역 전체에 관련된 스코틀랜드의 정책 목표는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환경 및 기후변화와 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 무역과 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곳이 북극 지역 및 북부 국가들의 해양 운송과 물류의 허브로 기능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⁹⁾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북극 인접 국가들과 가까이 위치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리적,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북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목표로 한다.

스코틀랜드는 북극으로 향하는 유럽의 관문으로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스코틀랜드의 국제적 관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북극 지역과 가깝고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임을 바탕으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북극 지역 국가들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으로는 연구 및 교육, 문화적 연계, 지역 간 연결,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북극 지역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학술 파트너십, 무역 교류, 예술 프로젝트 등 기업 및 일반 시민 차원에서의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에 더불어 지역 간 연결성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해양 자원의 활용 등 소규모 지역 간의 연계 또한 고려하고 있다.

김봉철 교수

—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부,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

6) 관련 정부 기관 현황

영국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북극 지역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NERC(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북극사무소(NERC Arctic Office)는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극지 연구 시설이다.¹⁰⁾ 이곳은 영국 남극 조사국(British Antarctic Survey)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NERC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 사무소에서는 북극 과학연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중심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현재는 영국 남극 조사국의 운영 팀과 협력하여 스발바르 제도에 북극 연구기지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린란드, 일본, 캐나다, 러시아 및 북극이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https://www.thearcticinstitute.org/country-backgrounders/united-kingdom/>

2)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published report on Protecting the Arctic”,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62/environmental-audit-committee/news/179527/announcement-of-report-publication1/>

3) “Adapting To Change: UK policy towards the Arctic”,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57c1ded915d731495a53a/Adapting_To_Change_UK_policy_towards_the_Arctic.pdf

4)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dfence/388/388.pdf>

5) “On Thin Ice: UK Defence in the Arctic”,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dfence/388/388.pdf>

6) “Beyond the Ice: UK policy towards the Arctic”,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7251/beyond-the-ice-uk-policy-towards-the-arctic.pdf

7) “The UK’s Defence Contribution on the High North”,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241cd63d3bf7f32b2e52515/The_UK_s_Defence_Contribution_in_the_High_North.pdf

8) “Looking North: The UK and the Arctic”,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3e38ed3e90e0762637e30d0/looking-north-the-uk-and-the-arctic-the-uks-arctic-policy-framework.pdf>

9) “Arctic Connections: Scotland’s Arctic Policy Framework”, <https://www.gov.scot/binaries/content/documents/govscot/publications/strategy-plan/2019/09/arctic-connections-scotlands-arctic-policy-framework/documents/arctic-connections-scotlands-arctic-policy-framework/arctic-connections-scotlands-arctic-policy-framework/govscot%3Adocument/arctic-connections-scotlands-arctic-policy-framework.pdf>

10) NERC Arctic Office“, <https://www.arctic.ac.uk/about/>

사진으로 본 극지이야기

인류의 이기심으로 멸종된 큰바다쇠오리



16세기 대서양을 항해하던 영국 선원들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해의 머리가 하얀 섬을 팽귄(Pengwyn)섬이라 불렀다. 여기서 ‘Pengwyn’은 영국 웨일즈 지방 말로 ‘하얀머리’를 뜻한다. 섬의 정상 부분이 하얀 것은 이 섬(지금의 핑크 섬)에 집단 서식하던 큰바다쇠오리의 배설물이 쌓였기 때문이었다. 선원들은 이 큰바다쇠오리를 팽귄 섬에 산다해서 팽귄이라 불렀다. 이후 뱃사람들이 남빙양을 항해하다 북반구의 큰바다쇠오리와 비슷한 용모와 습성을 지닌 새를 발견하고는 북대서양의 팽귄새가 연상되어서인지 팽귄이라 이름 지었다.

큰바다쇠오리는 80센티미터 정도 길이에, 체중은 5킬로그램 정도이며 날개와 뒷다리가 짧은 편이었다. 퇴화된 날개는 하늘을 나는 것 보다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진화했다. 그런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큰바다쇠오리는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냥감이었다. 사람들은 큰바다쇠오리를 수십만 마리씩 잡아들여 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질이 좋은 기름을 짜냈다. 선박 건조능력과 항해술의 발전은 큰바다쇠오리들의 포획을 가속화시켜 이들의 서식지는 하나 둘 사라지고 말았다. 1844년 마지막 큰바다쇠오리가 죽으면서 이 새는 공식적으로 멸종했다. 모든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큰바다새오리는 인류의 욕심 때문에 이제는 박제표본만으로 남게 되었다.

남극의 팽귄도 사람에게 처음 발견된 이래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초창기 비싸게 거래되던 해표와 물개 기름을 끓여내는 연료로 팽귄 기름을 사용하느라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을 뿐 아니라 남극 탐험에 나선 탐험대원들의 식량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팽귄뿐 아니라 남극의 모든 동식물이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장 박수현

10th
anniversary

2024 NPARC

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

Venue: KMI 6th Floor Great Hall

Time: 2024.07.08(Mon) ~ 07.09 (Tue)

Invitation

The 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NPARC), initiated by Korea Maritime Institute(KMI), was founded b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of China, Japan and Korea in 2014.

Now it includes 9 Chinese, 10 Japanese and 10 Korean partner organizations. It aims to encourage regional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emerg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Arctic; to communicate and to share regional research outcomes for capacity building; and to enhance cooperation among members through various mechanisms.

We cordially invite the Arctic Scholars.

organized by



극지이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공지사항

공지	2019 우수 미래 극지연구자 국외 표	2019-01-18	비북극	[중국] 중국 남극과학탐사대 눈보라	2019-01-29
공지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	2018-11-28	비북극	[일본] 미츠이 산업, 러시아 노비텍	2019-01-29
공지	2017년 발간 북극이사회 자료 국문	2018-10-05	북극	[미국] 미국, ANWR 개발 관련 환경	2019-01-28
공지	2018년도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	2018-09-20	비북극	[중국] <중국북극발전 및 안보전략	2019-01-28
공지	2018년 극지전문인력양성(북극) 프	2018-09-04	북극	[러시아] 자원환경부, 고난이도-고!	2019-01-28

국가 정책 및 제도

[중국] 중국 남극과학탐사대 눈보라 2019-01-29

[일본] 미츠이 산업, 러시아 노비텍 2019-01-29

[미국] 미국, ANWR 개발 관련 환경 2019-01-28

[중국] <중국북극발전 및 안보전략 2019-01-28

[러시아] 자원환경부, 고난이도-고! 2019-01-28

SNS 소식

극지연구센터 2019-01-31

대외경제은행, 가스운반선 건조에 185억 루블 대출 예정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최근 열렸던 공기업 이사회에서 사베타(Sabetta) 항 천연가스 사업 발전의 일원인 신형 북극해 천연가스 왕복운반선 건조에 대외경제은행(VEB)이 185억 루블 규모의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회의는 시원개방에 따른 원료 생산량 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

동향정보

극지해소식

극지 동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향정보지입니다.

번호	호수	발행일	조회 / 다운	파일
99	제134호	2024-04-30	72 (56)	
98	제133호	2024-03-29	116 (78)	
97	제132호	2024-02-29	105 (105)	
96	제131호	2024-01-31	92 (61)	

발간 간행물

- KMI 국제물류워클리
- KMI 주간 해운시황포커스
- KMI 주간 주요수산물 수급리포트
-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 아시아조선리포트
- 극지해소식
- KMI 북방물류리포트
- KMI 동향분석
- 항만과 산업
- KMI 항만 서비스 지표
- 국제해양장세리포트
- 해양수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 KMI 인포그래픽
- KMI 북원 해양수산업리뷰
- KMI 해운시황보고서
- Position Paper

구독 신청